

“삶이 너무 가혹” 보육시설 퇴소 10대 여성 또 극단 선택

광주 아파트 화재서 숨진 채 발견...부모·동생·본인 모두 정신장애 시설 퇴소 후 부친과 함께 기초생활수급비·장애연금으로 생계 이어 일주일새 안타까운 죽음 잇따라...심리 상담 등 지원대책 마련 시급

보육시설(고아원) 출신의 10대 여성이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보육시설 출신의 10대 대학생이 광주의 한 대학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몇새만이다. 12장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한 이 여성은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그리고 자신이 모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7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화재에서 A(여·1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12층에 사는 A씨는 숨지기 전까지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4용지 12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들과 주민들에

게도 미안하고 고맙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숨진 A씨 부친 역시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있어서 열 두 살 무렵이던 지난 2015년 광주의 한 보육 시설에 맡겨졌다. 그러던 중 폭행의 문제로 2020년 전북의 한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보내져 생활했다. 법원의 통고처분에 따라 보육시설에서 치료시설로 보내진 것이다. A씨는 정해진 치료 기간이 끝나 지난해 2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광주지역 보육시설과 종종 연락할 정도로 관계는 유지됐다. 다만 지난해부터 보육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연령이 기존 만 18세에서 6년 늘어난 만 24세로 늘어났지만, A씨는 “자립”을 결정했다고 한다.

숨진 A씨는 최근 들어 우울증 등이 악화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게 상담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 20일

에도 상담사와 장시간에 걸친 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 등으로 부친과 함께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다 올해 초 광주시 북구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다가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모친도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의 남동생은 A씨가 한때 맡겨진 보육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와 가족들 대부분이 정신 장애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특이 사항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 출신 10대들이 1주일 사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작 지원금 강화와 함께 심리 상담 등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고아권익연대는 “비극이 잇따라 발생했다. 안타깝다. 지원책 마련도 좋지만 일단 보육시설을 떠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병노 군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 죽어서야 만난 엄마

보육원 출신 대학 새내기 화장장 친모 참석...아들 유골 영락공원 안치

금전적 문제와 홀로서기의 불안감 등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육원 출신 대학 새내기가 죽어서야 친모를 만났다.

24일 광주시 영락공원에서 광주시 광산구 모 대학교 강의동 옥상에서 뛰어내린 뒤 3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A(18)군의 화장장이 진행됐다.

A군은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가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군의 시신은 발견 후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

안치실로 옮겨졌지만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다. 상주를 맡을 친인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군이 생활했던 보육시설은 발인 하루 전날 밤에야 겨우 A군의 친모 B씨와 연락이 닿아 사망소식을 전했다. B씨는 24일 새벽 광주로 와 A군의 화장장에 참여했다.

보육원 관계자에게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인 B씨는 화장 후 수습된 아들의 유골을 영락공원에 안치했다.

B씨는 남편과 불화로 세살배기 아들을 경기

지역 보육원에 맡겼고 이후 여러 보육시설을 옮기다 2020년 5월 광주시 북구의 보육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사의 꿈을 꾸고 대학에 입학한 A군은 입학 후에도 보호연장 신청을 해 해당 보육 시설에 적을 두고 있었고, 후원금 700만원 상당을 기숙사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사망과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종결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친구 사망 부른 학폭 가해 학생 7명 항소

1명은 전학 취소 소송 냈다 패소

1년 이상 학교 친구를 괴롭혀 죽음으로 내몰 혐의로 징역 등 유죄 판결(광주일보 2022년 6월 27일자 1면 등)을 받은 10대 7명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학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철승)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공포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1일 연다. 피고인들은 지난 6월 내려진 1심에서 친구 3명과 함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범 김모(18)군은 장기 3년·단기 2년, 박모·정모(18)군 등 2명은 장기 2년·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박모·이모(18)군 등 2명은 장기 1년·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 소년부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광주 모 고교 1학년 시절이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 29일 피해 학생 A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1년에 걸쳐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과 괴롭힘 영상 촬영 유포, 여자친구와 가족에 대한 성적 비방 등 갖가지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측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항소한 피고인 가운데 박모(18)군은 2021년 8월 교육당국이 ‘괴롭힘 영상·촬영 유포’ 등 학교폭력 책임을 물어 ‘전학처분’을 내리자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 18일 패소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법원 ‘성희롱 장교 감봉 정당’

처음 번 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며 성희롱한 공군 장교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적절한 징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씨가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비행단 재정처 예산 담

당 대위로 복무할 당시 병사 2명과 야간 순찰에 나섰다. A씨는 당시 차 안에서 병사 1명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었고 ‘전 여자친구의 성격이 안 좋냐’는 취지로 성희롱을 했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품위 유지 의무 위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10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목격자 진술까지 종합하면 A씨는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했다”며 “재판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

강 시장 방문 앞둔 광주도시철도공사 과잉 의전 ‘논란’

직원 동원 용산차량기지 주변 5일간 풀 뽑기 등 청소 시켜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용산차량기지 방문과 관련해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강 시장 방문을 앞두고 주말을 제외한 최근 닷새 동안 하루 3~4시간씩 다수의 직원을 시장 동선 주변 풀 뽑기 등 청소를 시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닷새 동안 광주시 동구 용산동 차량기지 소속 직원 7~8명을 청소로 동원했다. 청소로 나선 직원들은 차량탐·미화팀

소속 일반 직원과 과장·부장급으로 이들은 기지 내 도로 주변의 풀을 뽑고 빗자루를 이용해 도로를 쓸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 ‘바로소통 광주’ 게시판에 지난 22일 글을 올린 직원은 “시장이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 도로에서 5일 동안 풀을 뽑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군대에서 사단장 온다고 청소했는데(이전) 사단장이 헬기 타고 지나가는 꼴 아닌가”라며 “차라리 시장님이 안오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 “이번주 수요일(24일) 시장님이 오신다고 3일째 퇴약별로

서 기지내 도로를 청소하고 있다. 민선 8기인데 내가 전두환을 뽑은 것도 아닌데 꼭 부대에 사단장님 오신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강 시장은 사전 예고된대로 24일 오후 4시 용산차량기지를 방문해 1시간 동안 정부의 전시대비 통합방위 훈련인 을지연습을 참관한 뒤 돌아갔다.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을지연습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기지를 정비하는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 공사 임원이나 광주시에서 의전을 요구한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h2>상무지구(상가매매)</h2>	<h2>당진(신축)원룸매매</h2>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h2>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향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td> </tr> <tr> <td></td> <td>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td> </tr> <tr> <td></td> <td>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td> </tr> <tr> <td></td> <td>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td> </tr> <tr> <td></td> <td>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td> </tr> <tr> <td></td> <td>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td> </tr> <tr> <td></td> <td>동구 윤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td> </tr> <tr> <td>전남</td> <td>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td> </tr> <tr> <td></td> <td>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td> </tr> <tr> <td></td> <td>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td> </tr> <tr> <td></td> <td>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 </tr> <tr> <td>시외</td> <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td> </tr> <tr> <td></td> <td>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td> </tr> </table>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p align="center">010-6670-9800 (062-382-5500)</p>																												